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시리아나’



아챤다. 결국 그동안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국왕을 도우려 떠났지만 결국 국왕과 함께 죽게 된다. 정신없이 사회복지 일을 해왔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처럼 나 스스로를 포함한 주민들과 동료들의 배반 일 것이다. 힘들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믿고 지냈던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만 두거나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일이 제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1명은 회사와 정부사이의 중재 변호사로 처음에는 변호사로서의 도덕적 책임 때문에 괴로워하는 듯하다. 그러나 결국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두 명만 검찰에 넘김으로써 자신의 책임도 다하고 인수합병을 성공시켜 미국의 국익도 챙긴다. 실업자 아버지의 정의로운 의견도 무시한 채 실업자 아버지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껌껌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비친 모습은 아마도 나의 모습 같았다. 항상 합리적인 선택임을 합리화 하면서 살고 있는 그와 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은 닮은 데가 많다. 나라와 가정을 살리는 것과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상충될 때 우리는 아마도 이 변호사처럼 조차도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나라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감독은 미국에 그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이 사람과 그의 아버지를 통해 찾

4 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른채 4개의 에피소드가 진행되어 줄거리의 혼란을 주는 것 같았으나 최종적으로 이 4명은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면서 구성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잘 나가는 배우가 영화로 미국에 대

해 제대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1명은 CIA요원으로 무기거래 형제를 사살한다. 남아 있던 무기는 이슬람교도가 가져간다. 귀국 후 CIA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다시 국왕의 첫째 아들을 사살하라는 임무를 띠게 되지만 동료의 배반으로 CIA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CIA의 음모를 알

려 했던 것 같다.

또 다른 1명은 경제전문가로 가족과 함께 중동국왕파티에 참석했다가 중동 아이들이 소심한 자신의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받아 결국 죽게 된다. 미국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아이는 중동의 아이들에 의해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모들의 강박관념이 느껴진다. 억지일지 모르지만,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이러한 강

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빈곤지역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라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모로부터도 독립적일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교육환경조차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복지관은 그저 보호하고 의존하는 아이로 키우려 하고 있다. 물론 비행을 저지를까봐 가슴 졸이며 이들이 사회복지현장에 오는 것을 고마워하며 청소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워 혼자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은 미국부모들의 강박관념을 사회복지사들이 조금은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잠시나마 야망을 가졌던 미국의 아버지는 국왕의 가족을 죽음으로 지켜본 후 미국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늦게나마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자신의 아들 죽음에 미안해했던 이란의 국왕이 되지 못했던 첫째아들의 마음들과 미국으로 돌아간 한 가정의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서로의 가족들을 죽이는 복수와 전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미국인 아버지를 살려 보낸 이유에 대해 미국은 진정으로 한번 고민해야 하며, 살려준 것에 보답해야 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독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1명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로 자신의 회사를 미국회사에서 인수합병하면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고, 돌아갈 수 없던 파키스탄 청년은 취업을 위해 이슬람교도가 되려고 한다. 결국 파키스탄의 눈 덮인 산을 그리워했던 한 청년은 취업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 현세를 버리고 이슬람의 뜻을 따르는 전사가 되어 미국의 석유 배에 폭탄을 싣고 자살한다. 지금 한국 주변의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한 마을의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 5일제가 되고 복지관 현장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주 5일제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업무가 많고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일 저녁시간과 토요일, 일요일에,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

었던 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차비를 빌려 포옹하고 떠나는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아들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래도 청년은 행복한 것이다. 마지막 비디오 유언을 통해 죽어서 진정한 삶을 찾을 것이며, 다음 세상이 진정한 삶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이 반 사회복지적인 세상이 되어 사회복지사들이 배로 자살해야 한다면 우리는 죽음 전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 옆에 물어달라고 장례식장엔 부자들은 입장시키지 말아달라고 남은 장기가 그래도 쓸모 있다면 기증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나와 같은 삶을 살려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면 우리 선조들 중에는 독립운동선배님들을 포함한 정말로 훌륭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았고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워 사회복지를 선택했다'고 말할 것이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대해 진실을 말했던 이 영화처럼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진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하나 더 바란다면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묘비명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에 대해 진실을 말하며 살다간 누구누구' 글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

